

IEA, 2008년 세계 원유 수요 “주춤”

하루 평균 8754만배럴로 8만배럴 줄어 ... 미국은 0.1% 감소 전망

주요 에너지 소비국을 대변하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11일 2008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2개월 연속으로 낮추었다.

IEA는 3월11일 발표한 최신 월간 에너지 수급 동향 보고서에서 전세계 원유 수요가 2008년 하루평균 8754만배럴로 8만배럴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IEA는 2월 보고서에서는 하루 수요 전망치를 20만배럴 가량 낮춘 바 있다.

보고서는 2008년 1/4분기 원유 수요 전망이 하루 8796만배럴 가량이라면서 연평균 수요 증가율이 앞서 예상한 2%에 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유가가 100달러대를 돌파한데 반해 미국 등 선진권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원유 수요 증가율을 주춤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흥국들의 수요 전망은 계속 늘어나 중국과 산유권인 중동이 2008년 하루평균 각각 40만배럴 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증가율 기준으로 중동이 6.1%, 중국은 5.6% 가량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은 경기 둔화로 2008년 석유 수요가 0.1%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2007년 중국과 중동, 그리고 미국 모두 원유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8년 하루평균 2065만배럴을 소비해 3년 사이 원유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선진권의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가 1월 32.6% 증가한 평균 26억2000만배럴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 원유 공급의 40% 가량을 차지해온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2008년 하루평균 3180만배럴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OPEC은 3월5일 석유장관회담에서 13개 회원국 가운데 이라크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의 산유 쿼터를 하루 2967만배럴로 유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2>